

# 나주 배농가 '이른 추석' 고민 끝... '신화배'가 있다

〈신고배·화산배 교배종〉

## 농진청 배시험장, 신제품 육종에 성공 수확시기 빠르고 당도·크기·맛 '으뜸'

이른 추석에도 크기와 당도, 맛이 제대로 들어있는 배를 수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 배시험장은 8일 "신고배와 화산배를 교배한 신제품 '신화배' 육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배는 국내 재배품종의 80% 이

상을 차지하는 중만생종 신고배의 수확시기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다. 추석 명절에 30~40% 가량 배 출하를 마쳐야 하지만 신고배 수확시기는 9월 말 이후다. 이리다 보니 당도와 육질이 떨어지는 배를 시장에 내거나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는 등 약순환이 반

복됐다. 또 수확시기가 집중된 만큼 홍수 출하, 단일품종 장기 재배에 따른 병해충 발생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농진청은 지난 1990년부터 신제품 육종에 들어가 기존 신고배에 조생종인 화산배를 교배, 2009년 첫 결실을 얻은 후 검정과 묘목생산을 거쳐

다. 신제품 신화배는 당도가 13브릭스로, 신고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1브릭스 가량 높다. 크기가 모양도 신고배 못지않는데 무엇보다 수확시

가 9월10~15일이어서 추석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상온에서도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있고, 꽃눈 형성이 잘 돼 재배도 쉽다.

농진청은 현재 묘목 생산단계로 내년부터 농가에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품질이 우수한 신화배 등 조생종 품종을 오는 2020년까지 30% 이상 보급해 이른 추석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다. 특히 우리 배 품종이 생산현장에 본격 보급되면 국산 품종만으로 수확기를 다양하게 조절하고, 수급문제도 해결하는 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배시험장 이한찬 장장은 "2023년까지 아삭한 육질과 풍부한 과즙의 우리 품종 배가 세계시장을 석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추석 선물용 등 명절 소비에 치중하고 있는 배가 일상 속에서 즐겨먹는 과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은 배시험장 이한찬 장장은 "2023년까지 아삭한 육질과 풍부한 과즙의 우리 품종 배가 세계시장을 석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추석 선물용 등 명절 소비에 치중하고 있는 배가 일상 속에서 즐겨먹는 과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배 품종이 생산현장에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강진·성전농협 합병...자산 2700억대

강진농협이 합병 절차를 밟아온 성전농협의 흡수합병을 결의했다.

8일 강진농협에 따르면 두 농협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병 찬반투표에서 85% 이상 찬성표를 얻어 최종 합병을 확정했다.

강진농협의 찬성률은 84.7%, 성전농협의 찬성률은 89.4%를 기록했다.

성전농협은 지난해 말 기준 조합원 1196명, 총자산 507억원, 예수금 377억원 규모다. 강진농협은 조합원 3790명, 총자산 2172억원, 예수금 1542억원이다.

이로써 지난 2011년 8월 성전농협에 대한 경영진단 평가결과 합병권고를 받은 지 2년여 만에 합병추진 절차

를 모두 마쳤다.

강진읍, 군동면, 성전면이 하나의 구역이 되는 조합원 약 5000명, 자산 규모 2700억원의 새로운 강진농협이 출범하게 됐다.

강진농협은 합병공고(1개월)와 채권자 보호절차 이행(3개월) 등을 거쳐 곧 대의원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2014년 1월부터 합병농협으로서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합병을 하는 강진농협은 정부의 무이자 자금 20억원과 농협중앙회 무이자 자금 100억원을 각각 5년간 지원 받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 강진 '청자불판' 주문 쇄도

지난달 출시된 '청자불판'의 주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물론 수도권 등 전국에서 700여 개가 주문돼 생산업체가 9일 휴일도 반납한 청자불판 제작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자불판은 소비자의 주문 후 바로 제작에 들어가 작품 청자와 같이 전 공정을 수작업으로 해 10일 만에 완성된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출신인 '청자불판'의 주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물론 수도권 등 전국에서 700여 개가 주문돼 생산업체가 9일 휴일도 반납한 청자불판 제작에만 몰두하고 있다. 청자불판은 소비자의 주문 후 바로 제작에 들어가 작품 청자와 같이 전 공정을 수작업으로 해 10일 만에 완성된다. <강진군 제공>

## 장성 상무대 군인 면회가족 대상 관광상품 판매

### 군, '투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축령산·홍길동 테마파크 등 소개

장성군이 상무대 군인가족 역의 면회 제도가 일부 부활됨에 따라 군인 면회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관광상품 판매에 나섰다.

군은 8일 "상무대 군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장성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 보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투어&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투어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 당일코스과 1박 2일과정으로 운

영된다. 참가자들은 전국 최대 편백 숲인 축령산과 홍길동테마파크를 비롯한 장성 8경과 황룡전지, 박수랑 백비 등을 둘러보게 된다.

또 축령산 피톤치드 삼림욕, 편백 비누만들기, 장성조 조정체험 등도 마련돼 있으며, 투어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장성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해줄 방침이다.

군은 관광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상

무대와 장성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상무대를 방문하는 등 장성투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상무대 군인과 가족들이 함께 하루나 이틀 동안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산물 판매 코너도 마련해 보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톡 톡 독서·토론 캠프' 열렸다

### 화순 도암중 등 4개교 학생·교사 참여 답양중서 작품 주제 놓고 활발한 논쟁

답양중학교(교장 김성희)는 지난 7일 답양중학교 도서관 '헤움'에서 목포항도어중, 나주봉황중, 답양중, 화순도암중 4개교 학생 30명과 교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각 톡(talk)·톡(talk)' 독서·토론 동아리 연합캠프를 열었다. <사진>

이번 캠프는 전라남도교육청 역점사업인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토론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고민해온 교사들이 시행 착오를 거치며 고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1부는 자기 소개하기를 시작으로 다양한 토론 기법을 익히는 프로그램이,

2부에서는 이창준의 작품 '조만독씨'를 선정해 "조만독씨를 꼭 치료해야 할까?"라는 주제 아래 포럼과 논쟁이 진행됐다.

답양중 이경현교사는 "이번 캠프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 경청·배려·존중의 힘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합 캠프는 답양중을 시작으로 각 학교별로 순회해 3차례 진행되며, 참여 교사들은 현재 '전남언어문화교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세일 글

### "기슴 따뜻한 창의적 인재양성 주력"

#### 양연옥 장성교육장

"학문 숭상의 전통이 뿌리 깊고 선비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문향의 고장 장성 교육에 몸담게 돼 영광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지만 장성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무한한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연옥(57) 신임 장성교육장은 '훈(魂), 창(創), 통(通)'의 3중주 교육행정을 통해 기슴이 따뜻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또 "충실한 학교 교육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중심, 교육과정 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투명한 지원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신임 장성교육장은 전남 남영고, 전남대를 졸업한 뒤 1978년 장흥여고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뒤 이후 담양수북중 교장, 도장학기획담당 장학관 등을 거

쳤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국토부-녹색건축지원 30여명**

## 나주서 사랑의 연탄 배달

국토교통부와 녹색건축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의회는 나주의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쳤다.

나주시는 8일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녹색건축지원 등 30여명은 시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가구에서 집 고치기와 사랑의 연탄 나누기 등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소득 독거노인을 방문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 및 장판 등을 교체했다. 또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2가구에 연탄 1000장씩을 배달해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효율 진단 및 난방 개선활동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용을 절감하게 했다"며 "협의회 관계자들이 현장을 체험해 에너지 절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녹색건축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건축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의회는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1개 공공기관 중 '초에너지절약형 청사'로 건축하는 10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전력이 포함돼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입학문의 ▶ 062-605-1114

#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인문	신학과	20	10	20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3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8	7	5
사범	유아교육과	10	7	3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6	4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5	-	5
총계		72	31	39

■전형일정

수시 1차모집 : 원서접수: 2013. 9. 4(수) ~ 13(금) · 전형일: 2013. 9. 26(목)

수시 2차모집 : 원서접수: 2013. 11. 11(월) ~ 15(금) · 전형일: 2013. 11. 21(목)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3. 12. 19(목) ~ 23(월) · 전형일: 2014. 1. 3(금)

■특별전형

- 전학과: 지역인재양성 전형
- 신학과: 교역자, 목회자사모, 교회봉사자, 교역자자녀, 국가(독립)유공자(손)자녀전형
- 유아교육과: 가정주부 전형

■장학제도

매학기 약 30%이상의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기타 입학특별장학금, 보훈장학금, 독지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등 지급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조로 36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外 3개국 수출증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광주 NC점 : 062)510-7040 서울 차생원 : 02)730-2983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

T.062)222-2902, 3973

광주광역시 북구 소태동 703-1